

박물관 한국 도자기 유물명 번역의 통시적 고찰 — 제국의 아카이브에서 주체적 표상으로*

박현주(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유물 명칭 및 그 번역은 몇 단어에 불과해 언뜻 보면 이데올로기와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명명자 혹은 번역자가 해당 유물의 어떤 측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명명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주체의 문제로도 접근 가능한 사안이다.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대표 유물 중 ‘데이비드 꽃병(David Vases)’¹⁾이나 ‘게이어-앤더슨 고양이(Gayer-Anderson Cat)’는 명칭만 놓고 보면 앞부분의 영어식 이름 때문에 비영어권 문화유산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 유물 명만으로는 국적 불명을 넘어 일종의 ‘귀화’(naturalization)(Berman, 1985/2012, Munday, 2016에서 인용됨)가 이루어진 셈이다. 데이비드 꽃병은 이 중국 원나라 도자기의 소장자였던 퍼시벌 데이비드(Percival David), 게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364).

1) 닐 맥그리거가 저술한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원제 『A History of the World in 100 Objects』)에 번역된 표현을 따랐다.

어-앤더슨 고양이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 유물을 입수해 동 박물관에 ‘기증’한 영국 해군 소령 앤더슨의 이름을 따 붙여진 명칭이다(British Museum).

유물명은 “관람객과 전시 유물 사이에서 관람객들을 올바른 감상으로 이끄는 안내자 구실”을 해야 하는데(국립중앙박물관, 2006, p. 175), 상기와 같은 명칭 혹은 명명 방식은, 박물관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인 대중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물을 ‘기증’한 기존 소장자의 ‘고귀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칭에서 원소유국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다른 국가 및 문화와의 역사적 접촉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서의 기능은 배제된 셈이다.

이렇듯 유물명 및 그 번역은 명명/번역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주체가 그 유물의 어떤 요소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와 국외, 특히 우리나라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영미권 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며 그 행위(명명/번역) 주체가 달라지며 번역학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본고는 궁극적으로 박물관 유물명 및 그 번역에 담긴 문화 및 국가 표상 측면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을 한국 도자기류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자기류가 해외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유물 중 비중이 가장 높아 다른 유물류보다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대에 서구로 반출된 사례가 많아 통시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새로 입수한 현대 작품의 경우 영국 박물관의 ‘번역된 도자기(Translated Vase)’(소장품 번호 2015.3055.1)³⁾에서 볼 수 있듯 작가가 부여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본고에서 보고자 하는 주제에 따른 번역 명칭의 변경 문제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대적

2) 박현주(2023)는 박물관 입수 경위를 단순히 ‘기증’이라고만 적시하는 것이 식민주의 행위를 미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1910년 런던 일영박람회 후 통감부 관리 오기타 에츠조가 영국박물관에 한국 유물을 ‘기증’한 사례를 언급한다.

3)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번역된 도자기’는 이수경(1963~) 작가가 2001년부터 제작하고 있는 동명의 연작 중 한 작품이다.

제한을 둔다는 의미에서 ‘소장품’ 대신 ‘유물’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2. 명명의 권리와 도자기 명칭의 번역

2.1 명명의 권리

칼베(Calvet)는 언어를 영향력 크기에 따라 네 가지, 즉 ‘극초중심어(hypercentral)’, ‘초중심어(supercentral)’, ‘중심어(central)’, ‘변방어(peripheral)’로 구분한 중력모델(Gravitational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Calvet, 2004, 송영빈, 2013, pp. 4-9에서 인용됨).⁴⁾ 이 모델은 언어를 단순히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 간에 양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며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극초중심어에서 중심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식민 지배 상황이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반대로 작용하는 힘에 비해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p. 8).

명명의 권리 또한 영향력이 큰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혹은 집단이 소유하게 되는데, 칼베는 이를 오늘날의 ‘카메룬’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최초의 포르투갈 항해자들은 우리(Wuri)강에서 작은 새우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강에 ‘작은 새우들의 강(rio dos camarõe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유법에 의해 이 명칭은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고 오늘날 코토코(Kotoko), 바밀레케(Bamileke), 팡(Fang), 팔리(Fali), 두알라(Douala) 종족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붙여진 이 통칭적 명칭

4) 송영빈(2013, pp. 4-5)은 칼베의 ‘hypercentral’, ‘supercentral’, ‘central’, ‘peripheral’을 각각 ‘하이퍼 언어’, ‘슈퍼 언어’, ‘중심 언어’, ‘지역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원어 없이 하이퍼, 슈퍼, 중심 언어라는 용어만 놓고 볼 때는 그 위계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SL에서 ‘central’을 공통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TL에서도 ‘중심’을 공통 요소로 하고 접두사 ‘초’, ‘극초’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 상하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central’과 ‘peripheral’의 경우도 식민주의 논의에서의 중심과 변방의 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심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고 ‘peripheral’을 ‘변방어’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에 따라 ‘카메룬 사람들’이라고 불린다(Calvet, 2004, pp. 81-82).

노부타카(2005)는 지배어에 대해 소수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i) 종속적 동화, ii) 저항에 의한 독립, iii) 소극적 공존, iv) 적극적 공존으로 분류한다(노부타카, 2005, 송영빈, 2013, pp. 10-11에서 인용됨). 이 중 ii)는 “지배언어를 거부하고 민족어로 저항”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한국어가 거의 유일하게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크로닌(Cronin, 2000)은 제국이 식민지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관련 정보를 축적 및 저장하는 과정, 즉 토마스 리처즈(Thomas Richards)의 표현을 빌자면 ‘제국의 아카이브(Imperial Archive)’로 귀속시키는 ‘규범화 과정(normative process)’에서 번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그는 브라이언 프리엘(Brian Friel)의 회고 <번역(Translations)>과, 그 배경이 되는 1830년대 아일랜드 토지 조사령(British Ordnance Survey of Ireland)을 분석함으로써 번역과 정보 수집, 허위화(falsification)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낸다. 즉 영어로 ‘표준화’한다는 명목 하에, 게일어로 된 원 지명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원전의 그릇됨을 확증하고자 하는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일제의 고적조사사업(1931~1945)도 제국의 ‘규범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 지명의 ‘영어화’처럼, 한국의 ‘고적’을 일어화, 즉 일본어로 번역해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제국의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도자기 명칭은 일본식 명명법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명칭을 도록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일종의 텍스트로서, 네더(Neather, 2024)가 언급한 ‘목록화(cataloguing)’ 기능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⁵⁾ 현재는 동아시아 공통의 명명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명명 규칙은 ‘재질+기법+무늬+기형+기종’⁶⁾으로 이루어져

5) 박물관 전시 공간에서의 텍스트 역할을 논한 네더(2024, p. 52)에 따르면, 전시물이 그 자체로 시각적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텍스트에 다시 담는 이유는 해당 텍스트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목록화(cataloguing)’ 기능으로 일종의 기록으로서 각 특징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고, 둘째는 ‘명시적(ostensive)’ 기능으로 특정 측면을 기술함으로써 관람객의 관심을 해당 특성에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6)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종류(재료)+기법+무늬+형태’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기도

있다.

조선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로 축적된 도자기 유물 등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수장되었고 그 목록이 1918년부터 1943년까지 발간된 『박물관진열품도감(博物館陳列品圖鑑 Museum Exhibits Illustrated)』이다. 동 박물관은 1915년 가을, 식민지 정책의 성공과 일본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 전시품을 이어받아 설립됐고, 이후 조선총독부의 발굴조사 및 수집을 통해 유물을 추가했다. 도감에 수록된 유물 비율을 보면,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가장 많고 조선과 고구려 유물은 극히 적으며 낙랑 및 중국 관련 유물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는 통일신라를 최고 융성기로 보며 고려와 조선을 한국의 쇠퇴기로 보는 일체의 식민지 사관과, 한국문화를 중국의 아류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이순령, 2017).

이 도감에는 유물 정보가 영문으로도 간략히 병기되어 있는데 도자기 유물 중 영문 정보가 수록된 것만 정리해 보자면 <표 1>과 같다. 일제가 편찬한 자료에 영문이 등장한다는 것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식민지에서 펼치고 있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일례로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고적도보』는 일본 식민통치가 거둔 거대한 성과로 국제사회에 널리 선전됐다”(이승혜, 2021, p. 127).⁷⁾ 다시 도감에 대한 논의로 돌아와 <표 1>을 보면, ‘繪高麗[회고려]’라는 한자를 ‘Egorai’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음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자기는 ‘고려’의 일본식 음역인 ‘Gorai (혹은 Korai)’⁸⁾라는 명칭을 붙인 채 전세계에 소개되었

한다(『문화재용어 순화안』 24쪽 등 참조).

- 7) 조선총독부는 1925년부터 10년간 총 15권에 이르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제작했다. 이순자(2009, p. 352)에 따르면, 이중 고적조사사업과 관련된 고대(낙랑, 삼국,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유물을 소장처 및 소장자별로 분류한 결과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이왕가박물관이 가장 많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고려 유물은 출토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발굴조사가 대부분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 8) 한중일과 베트남을 포함하는 한자문화권의 경우 문자 표기 자체로는 한자로 동일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사용된 글자인지 모호하지만 그것이 발음되는 순간 그 정체성이 명료해진다(Kim et al., 2023, pp. 95-96). 김효숙 등(Kim et al., 2023)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한국의 한자어 지명은 그대로 둔 채 발음만 달리해 지

던 것이다. 이러한 선전 활동의 성과로, 1910~1920년대 서양에서는 해당 일본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으며(김윤정, 2018), 이는 유물명 번역에 ‘제국’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번역 행위의 주체로서도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표 1

『박물관진열품도감』에 수록된 도자기 유물 명칭 번역⁹⁾

유물명(일본어)	영문 명칭	권호(쪽)
骨壺	Sepulchral Urn	1(17)
染付龜形大水注	White Glazed Water-Pitcher	4(21)
鐵砂葡萄文壺	Glazed Jar	5(21)
繪高麗水注	Water-Pitcher Blue Glazed "Egorai"	6(18)
刷毛目壺	Glazed Jar "Hakeme"	6(22)
刷毛目繪文壺	Glazed Pot "Hakeme"	7(22)
彩文壺	Painted Pot	8(3)
黑釉白草文瓶	"Egorai" Pottery	8(21)
新羅燒骨壺	Burial Urn	10(27)
蕨手狀裝飾附盒	Siragi Pottery with Hanging Ornaments	11(11)
高坏及臺	Offering Pottery	11(13)
新羅燒骨壺	Burial Urn	11(27)
靑瓷象嵌雲龍文瓶	Vase of "Seizi" Celadon Ware	12(27)
各種陶器	Pottery Vases	14(16)

2.2 도자기의 명칭과 그 명칭(요소)의 번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말 도자기 명칭은 기형 외에도 여러 요소로 구성되므로 각 요소를 나타내는 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명 변경의 효과를 피한 점을 분석했다. 일례로 ‘평양’의 경우 한일병탄 이후 한자어로는 동일하게 ‘平壤’이라 표기했지만 로마자로는 ‘Heijo’라고 표기해 영문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일본적 정체성이 부여된 지명을 널리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 9) ‘권호(쪽)’ 정보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1권~17권까지(2권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쪽수는 자료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PDF 리더기에 표시된 쪽수를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현아(2014)에 따르면 한국 도자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도자공예 용어를 보면 외형 및 무늬 관련 용어는 자세하고 복잡했던 반면 기술이나 원리를 나타내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이유는 한국 도자기에 내포된 무형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나타내기보다는, 박물관에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유물 수집과 전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어가 우선 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윤정(2018)에 따르면 근대 유럽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도 한국 도자를 일본 미술의 범주 안에서 인식했다. 따라서 판매용 카달로그를 보면 일본에서 높게 평가되는 다완 위주로 수록되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 도자에 대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1910~1920년대에는 일본식 용어인 ‘에고라이(yegorai)’(혹은 ‘egorai’), ‘미시마(mishima)’(三島[삼도]) 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후 1930~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에 의해 한국 미술이 서양에 알려지며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며 일본식 용어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대신 ‘Koryu painted wares’[철화청자], ‘Koryu inlaid wares’[상감청자], ‘Yi wares’[조선 분청사기], ‘Yi porcelain’[조선 후기 도자] 등, 한국어 발음과 영어식 표현을 적용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현아(2017)는 2000년대 이후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도록을 대상으로 박물관 도자공예 용어의 번역 양상을 파악하고 그 전문용어로서의 적합성을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어 도자공예 용어의 80퍼센트 이상이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유입된 한자어이며 일부 용어는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화(彫花)’ 기법은 꽃을 조각하는 기법이 아니라¹⁰⁾ 도자기 표면에 백토를 바르고 난 후 음각을 하는 분청사기 장식 기법을 일컫는다. 이러한 SL의 전문용어로서의 투명성 부족은 번역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SL 용어의 정비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가 아닌 전문용어의 음역은 의미 환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음역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조화기법’이란 명칭이 주로 모란이나 국화 같은 초화문을 음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하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개선하고자 미술사 전시 용어 개선 작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물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 - 미술사』로 편찬했다. ‘도자 공예’는 108쪽부터 30쪽에 걸쳐 기술되어 있는데, 번역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SL 용어의 표준화와 TL 용어의 일관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보인다. 그중 직접적으로 영문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 개선안

기존		개선안	
상감, 감화	inlaid	상감	inlaid
인화	stamped	인화	stamped
박지	sgraffito, cut	박지	sgraffito
조화	incised	조화	incised
철화, 철회	iron-painted	철화	underglaze iron-brown painted
귀얄	slip brushed	귀얄	white slip-brushed
덤병, 담금, 담금분장, 분장, 백토	dipped, coated slip, underglaze white slip	분장	white slip-coated
철화안료		in underglaze iron-brown	
청화안료		in underglaze cobalt-blue	
동화안료		in underglaze copper-red	

SL 용어의 표준화는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례로 ‘진사’라는 용어를 ‘동화’로 표준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용어들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법 대신, 단순히 외부적 특징을 명칭으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진사’도 그 중 하나다. 황화수은이 주 성분인 천연 광물 진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사처럼 색이 붉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로 인해 구리 성분을 바탕으로 한 동화 장식이 해당 기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사/황화수은’이라는 의미의 ‘cinnabar’로 잘

못 번역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¹¹⁾

3.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영미권 및 한국 박물관 관련 자료에 수록된 도자기 유물명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크게 시대에 따라 세 가지, 즉 근대, 이행기, 현대 자료로 분류했다.

첫 번째, 근대 시기 자료는 주로 영미권 박물관 유물명 관련 선행연구(특히 김윤정 2016, 2018, 2019)에 언급된 자료 중, 백 년 이상 된 자료로 인터넷(archive.org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 한국 도자기 부분을 조사했다. 그러나 유물명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 필요에 따라 영미권 박물관이 직접 출판하거나 박물관 관련 인사가 저술에 관여한 자료까지 포함했다.

- 『The Bernadou, Allend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이하 ‘Smithsonian 1893’)
- 『Catalogue of Japanese Pottery』(이하 ‘MFA 1900’)
- 『The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Early Chinese Pottery and Sculpture』(이하 ‘MET 1916’)
-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Korean Pottery』(이하 ‘V&A 1918’)
-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이하 ‘Penn 1918’)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으로 제실박물관이 설립되었으나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기에(하계훈, 2008), 주제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서구권에 대한 비교 자료로서 한국의 근대 자료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일종의 ‘중역’

11) LACMA 소장품 번호 M.86.329.4 유물은 NRICH 도록에 ‘백자청화진사운학송호문 병’(白磁靑畫辰砂雲鶴松虎文瓶 Bottle with Clouds Crane and Pinetree Design in Cinnabar Underglazed Cobalt-blue)이라고 수록되어 있고 이 영문 명칭이 그대로 LACMA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있다.

이 이뤄졌기에 필요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편찬한 『박물관진열품도감』을 참조했다.

두 번째, 이행기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해외 박물관에서 주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표상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아래 두 건의 미 박물관 순회 전시회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¹²⁾

- <한국국보전> 도록(Masterpieces of Korean Art): 1957~1959 미국 순회 전시 도록, 첫 국외 전시(이하 ‘<국보전> 도록’)
- <한국미술오천년전> 도록(5000 Years of Korean Art): 1979~1981 미국 순회 전시(이하 ‘<오천년전> 도록’)

<국보전>은 최규남 문교부장관이 서문 작성 일자를 1957년 8월 15일 ‘광복절(Independence Day)’이라는 문구를 통해 밝히고 있듯 큰 상징성을 지녔다. 도록 자체의 작성은 미국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맡았으나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협업 형태로 이뤄졌다(권기준, 2024). 일부 전시품 명칭에 여전히 중국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¹³⁾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조선고적도보』의 오류 정보를 정정하고 있기도 하다.¹⁴⁾

- 12) 권기준(2024)은 접촉지대로서 한국 문화 유산이 국외 전시된 두 가지 사례로 국보전과 오천년전을 분석하고 있다.
- 13) 도판 목록 59번 전시품은 본문에는 ‘Incense Burner’라고만 되어있으나 ‘List of illustrations’을 보면 ‘Incense Burner, Shaped as a Ting’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ting’은 ‘술 정(鼎)’자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려 청자 향로가 중국 고대 청동기의 조형성이 도입된 유물, 즉 술 모양을 본 따 만들어진 제기(국립중앙박물관 덕수 852 유물 페이지 참조)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청자 양각 도철 무늬 향로’라는 국문 명칭과, ‘Celadon Incense Burner with Ogre Mask Design in Relief’라는 영문 명칭이 붙어 있다.
- 14) 도록 87쪽에 수록된 ‘68. WINE POT AND STOPPER’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덕수 5324, 청자 거북이 모양 주전자(靑磁龜形注子)로 『조선고적도보』에 이 유물의 뚜껑이 다른 유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잘못 수록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In the Japanese publication *Chōsen Koseki Zufu*, vol. VIII, plate 1003, no. 3454, the stopper appears on the top of the next wine pot, no. 69, but by size and color it definitely belongs to this wine pot.

<오천년전> 도록은 표지 상단에는 영문으로 전시명이 적혀 있고 하단에 한글로 ‘한국미술오천년’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 한국 전문가들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국보전 이후 20년간 축적된 학계의 지식이 반영되어 전문성에서 크게 진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권기준, 2024, p. 625).

세 번째, 현대 자료는 다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

- 한국 자료 1: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제작 시기가 1950년 이전인 소장품 중 한영 사이트 동시 존재하는 소장품으로 한정. 즉 번역어가 존재해 SL-TL쌍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
- 한국 자료 2: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국외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보고서(이후 ‘NRICH 도록’, 영미권 한정¹⁵⁾)
- 영미권 자료: NRICH 도록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해당 영미권 박물관 웹사이트 중 NRICH 도록에 수록된 도자기 소장품으로 한정

제작 시기를 1950년 이전으로 한정된 것은 NRICH 조사 대상 자체가 해당 시기로 한정되어 있어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유물명의 영문 번역을 분석함에 있어 각 기관별 스타일 차이로 인한 대소문자 구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영미권의 경우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명칭을 간략하게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정보가 포함되는 SL 명칭과의 비교를 위해, 영문 명칭의 경우 매체 정보 등이 포함된 부제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자기류의 범위는 기와와 벽돌(전)은 제외하고 도자와 토기로 한정했다. 국외 박물관 자료는 NRICH 도록에 수록된 유물 중 해당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자료로 범위를 한정했다.

명명권 즉 주체성의 박탈 및 수복에 따른 도자기 유물명 번역을 기술함

15) 영국박물관(이하 ‘BM’),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이하 ‘V&A’),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하 ‘MET’), 보스턴박물관(이하 ‘MFA’), 브루클린박물관, 코넬대박물관, LA카운티박물관(이하 ‘LACMA’), 시애틀박물관, 오리건대박물관, 포틀랜드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 박물관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을 집속지대로서의 박물관 관점에서 고찰한 박현주(2022)를 참조할 수 있다.

에 있어 아래 각 절별로 해당 절의 주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대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했다. 보다 잘 알려진 사례도 있으나 지면 제약으로 복수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례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혹은 ‘매병’이나 ‘장군’처럼 겹치는 용어가 있을 경우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해 번역학계와 실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수의 사례를 선별했다.

4. 명명권의 박탈과 ‘제국의 아카이브’

19세기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 시기 한국은 주체성을 지니지 못한 채 주로 서구와 일본을 통해 표상되었고 이에 따라 도자기를 포함한 유물에 대한 명명권 또한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유물명 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서구에 의한 자국화와, 일본을 통한 중역 및 일본식 용어의 전파를 들 수 있다.

4.1 근대 서구에 의한 자국화

서구는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한국의 도자기를 명명(혹은 번역¹⁶)함에 있어 자신들에게 친숙한 개념이나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예외적으로 스미스소니언 자료(Smithsonian 1893)의 경우 ‘Wine bottle (Sul-biung)’처럼 한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로마자로 병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민족지학적 접근¹⁷에 기반해 실제 현지에서 조사가 이뤄졌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함으로써

16) 대부분의 도자기가 일상의 기물로 사용되며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할 때, 한국 도자기에 서구인이 영문 명칭을 부여하는 행위는 도자기를 시각 기호를 영문 알파벳이라는 문자 기호로 번역하는 기호간(interssemiotic) 번역으로도 볼 수 있다.

17) 스미스소니언 자료(Smithsonian 1893)에는 버나도(J. B. Bernadou)의 수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버나도는 해군 중위로 1884-1885년에 걸쳐 스미스소니언 소속으로 한국에서 민족학적 유물을 수집했다. 19세기 말 서구에서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근대성이 시대정신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박물관에서는 사라져 가는 전근대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미개한 과거의 자취가 남아 있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발음을 같이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 근대 자료에서 자국화가 이뤄진 사례 중 하나로 ‘매병’을 ‘baluster-shaped vase’라고 번역한 예를 살펴보자(<표 3> 참조). ‘매병’은 우리 말로는 원래 ‘준’이라고 불렸으며 매화와 연관짓는 그 명칭 자체도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매병’이라는 용어가 고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문 번역도 현재는 이 SL 용어를 기준으로 음역되거나 의미역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서구가 해당 기물류를 번역하며 채택한 자국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3
서구의 자국화 사례

근대 (출처)	현대	
baluster-shaped vase (MET 1916)	매병	maebyeong; plum/prunus bottle/vase
chafing-dish (V&A 1918)	그릇받침 (기대)	Pedestal for Vessel (소장품번호 C.489-1918)

MET 도록(1916)을 보면 상체가 크고 S자 곡선을 한 형태의 매병을 ‘baluster-shaped vase’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이 도자기의 생김새가 서양식 계단의 난간 동자(baluster)와 유사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모양의 유사성 외에는 매병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게는 재료, 제작지, 상징성 그 어떤 측면에서도 도자기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국의 문화 요소를 가져와 임의적으로 명명한 자국화적 번역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천 문화의 구성원이 배제된 채 단순히 이국의 여러 기물 간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 서문화에서 익숙한 요소를 가져와 피상적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다.

비서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집 활동을 수행했다(최협, 2008, pp. 9-10).

4.2 중역과 역번역을 통한 일본식 용어의 전파

아래 표는 우리 도자기와 관련해, 근대에는 일본식 용어가 영문 번역 시 일종의 저본으로 작용하는 중역 현상이 발생했었고, 해당 TL 용어가, 일체 강점기 이후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최소한 1950년대까지는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국보전> 도록(1957)에는 ‘Black Goryeo ware’와 ‘*paek Koryo*’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각기 일본 용어인 ‘흑고려(黑高麗, *kurogorai*)’를 의미역, ‘백고려(白高麗, *hakugorai*)’를 음역한 표현이다. ‘흑고려’에 대해서는 본고 5.1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백고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표 4
일본식 용어의 전파¹⁸⁾

근대			현대	
일어(ML)	영어(TL)	출처	한국어	
繪高麗	<i>(y)egorai</i>	V&A 1918	퇴화청자(백화) 철화청자(흑화)	
黑高麗	<i>kurogorai</i> (black korai)		Black Goryeo ware	철채청자
白高麗	<i>hakugorai</i> (white Korai)	Penn 1918 ¹⁹⁾	<i>paek Koryo</i>	고려백자
辰沙	<i>shinsha</i> (cinnabar)		동화	
三島	<i>mishima</i>	MET 1916, MFA 1900, V&A 1918	분청	
刷毛目	<i>hakeme</i>	박물관 진열품도감 6, 7권	<i>punch' ng (hakeme)</i>	분청(귀얄)

18) 표에서 ‘ML’은 일어가 중간 언어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근대와 현대에 걸쳐 있는 번역어(Black Goryeo ware, *paek Koryo*, *punch' ng (hakeme)*)의 출처는 <국보전> 도록(1957)이다.

19) 이 자료를 저술한 워너(Warner)는 하버드대학교 포그박물관(Fogg Museum) 동양미술 큐레이터직과 동 대학교 고고미술사 교수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에서는 유물명 자체에 ‘hakugorai’²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근대 서구에서 한국 자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가 사용됐음을 아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의 저술에서 볼 수 있었다.

The group of small white dishes in the same case are of the type known in Japan as hakugorai (white Korai) and belong to a group of Korean wares wrongly labelled by certain people as Sung Ting Yao. (Penn, 1918, p. 18)

워너는 일본의 미학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3~1913, 오카쿠라 카쿠조라고도 불림)에게 사사했기 때문에 일본 용어 ‘白高麗’(ML)에 친숙했을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 자기를 ‘hakugorai’(TL1)라고 영문화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국보전> 도록에 보이는 ‘*paek Koryo*’(TL2)라는 표현은 ML인 ‘白高麗’가 우리나라에서 ‘백고려’로 역번역되어 쓰이다가 그 표현이 그대로 영어로 음역되어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white Koryo’라는 의미역 뒤에 “한국어로는 ‘백고려’”라고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국보전> 도록의 아래 해당 문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The wine cup and stand have a glaze of a light bluish-white tint. Scholars of ceramics have questioned such pieces as being a Chinese ware of the *ying ch'ing* type. Evidence exists to show that the Koreans produced such wares at

20)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한자어의 일본식 발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설명해 주신 내용을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며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黑高麗[흑고려]’를 ‘*kurogorai*’, ‘白高麗[백고려]’를 ‘*hakugorai*’라고 표기한 것은 한자를 훈독하지 않고 음독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白’자의 훈독을 로마자로 표기한 ‘*shiro*’는 흰색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haku*’는 중국 한자 발음에 가까운 음이다. 일본의 경우 미술이나 도자기 같은 전통 용어에서 한자의 음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자가 중국에서 전래된 역사적 유산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음독 표기는 전통적인 맥락에서 전문 용어를 강조하거나 중국 문화와의 연결을 나타낼 때 선호된다. 특히 도자기와 같은 일본 미술품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표기법이 널리 쓰인다.

kiln sites in Puan District. They were called white Koryo, paek Koryo in Korean. (<국보전> 도록, p. 130, 필자 밀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워너와 <국보전> 도록 모두 ‘백고려’를 송대 청백자(영청)로 혼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시대의 경질백자와 달리 연질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백자를 ‘백고려’로 분류한 것인데, 고려청자나 분청, 조선백자에 비해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기종이라 중국의 청백자로 오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에는 ‘백자음각선문탁잔’(본관 12432)이 고려 유물로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전시실(고려1실)에서는 ‘고려 사람들이 썼던 외국 물건’이라는 그룹 레이블 하에 중국 송대 ‘백자 잔과 잔받침’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그림 1

동일 유물의 다른 국적 표기 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 정보(좌), 전시실 레이블²¹⁾



4.3 서구의 번역에 드러난 오인식과 정보 오류

한국이 주체가 아니었던 영미권 근대 자료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V&A 1918의 분류를 보면 ‘3. Pottery of the Korai Dynasty’(고려자기) 밑에 ‘Miniature pieces, apparently intended for

21) 전시실 레이블 2024년 5월 17일 필자 촬영.

toys'라는 하위 분류를 두고 19~28번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19번은 'Vase'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데 V&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는 소장품 번호 C.504-1918로 현재는 'Myônggi Vase'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NRICH 도록에도 '백자명기(병) 白瓷器 White Porcelain Funerary Ware'라고 무덤에 넣어주는 부장품으로 작게 제작된 명기임을 밝히고 있다.

동 도록에 수록된 자기 중 28, 37, 49번 항목은 'Fish-bowl'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작은 물고기를 담은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5쪽 설명을 보아 '어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49번은 소장품 번호 C.534-1918 유물로 현재 V&A 웹사이트에는 'fish'라는 수식어 없이 'Bowl'이라고만 되어 있다. NRICH 도록 (2013, p. 137)에는 '청자음각유로문항 靑瓷陰刻柳蘆文缸 Celadon Jar with Incised Willow and Reed Design'이라는 명칭이 달려 있는데 어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자기에는 연못이 풍경이 그려져 있고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자기가 어항 용도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항'이라는 명칭을 확정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V&A의 C.534-1918번 소장품

그림 3

V&A의 '흑갈유주자'(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호자'²²⁾



또한 114번 항목은 소변기를 의미하는 'Urinal'이라는 명칭으로 르블론드

22) 사진은 각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갈무리한 것이다.

도록에 수록되어 있다(p. 36). 그러나 이 자기는 소장품 번호 C.599-1918 유물로 NRICH 도록에 따르면 ‘흑갈유주자’(黑褐釉注子 Darkish-brown Glazed Ewer)다.²³⁾ 오늘날의 주전자처럼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그릇(한국국제교류재단, 2004)을 소변기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손잡이를 구성하고 있는 동물 모양 때문에 남성용 이동식 변기인 ‘호자(虎子)’를 연관지은 것으로 보인다.²⁴⁾ V&A 웹사이트 해당 유물 소개 페이지에는 여전히 ‘Urinal’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소장품 설명 부분(Physical Description)의 내용이,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르블론드 도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 근대에 오인식된 사항이 백 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4. URINAL, soft red earthenware, covered with a very thick transparent blackish olive-green glaze. Handle in the form of a long-tailed animal standing astride the vessel and biting the rim of the spout. The top of the vessel incised with horizontal rings, the base only partly covered with glaze. (V&A 1918, p. 36)

Urinal of stoneware, covered with a very thick brown glaze. Handle in the form of a long-tailed animal standing astride the vessel and biting the rim of the spout. The top of the vessel incised with horizontal rings, the base only partly covered with glaze. (V&A 웹사이트, C.599-1918 유물 설명 페이지)

위 사례 모두 TL에 보다 친숙한 용어 내지 개념으로 한국 유물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23) 이 자기는 20세기 근대 유물로 V&A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한국 유물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NRICH 도록에서는 부록에 있는 조사 총 목록에만 간략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고 도록 본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변기를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산신이 호랑이를 불러 입을 벌리게 하고 소변을 보았다는 중국의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


5. 명명권의 수복과 주체적 표상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명명권을 수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30년대 고유섭 선생이, 근거도 없이 일본에 의해 붙여진 이름인 ‘미시마’나 ‘하께메’에 반대해, ‘분장회청사기’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06). 제작기법을 담은 이 명칭은 현재 ‘분청’이라 약칭되며,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난 기법이기에 영어로도 ‘buncheong’이라 음역된다. 그러나 아래 언급하게 될 ‘흑고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방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문화유산에 대한 명명권을 되찾고 주체적 표상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명명 및 번역 행위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국 도자기는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제국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를 전복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5.1 문화적 정체성의 회복 - ‘흑유자기’에서 ‘철채청자’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편찬한 『박물관진열품도감』에 ‘黑釉白草文瓶[흑유백초문병]’으로 수록된 자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본관 2074번 유물이다. 전체적으로 검정빛을 띄고 있어 일본어로는 ‘黑釉’라 명명하고 영어로는 그림 ‘회(繪)’자가 들어간 ‘회고려’라는 일본식 용어를 음역한 ‘egorai’로 번역하고 있다. 이 도감의 다른 권을 보면 청자의 TL 용어인 ‘celadon’이라는 용어를 당시에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법상 동 유물을 청자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관적 특성을 기준으로 ‘흑유’로 별도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참조).

표 5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2074번 유물 명칭 번역

SL(Ko)	ML(Jp)	TL(En)	출처
	黒釉白草 文瓶	"Egorai" Pottery	박물관진열품 도감 (1936)
	-	Vase Black Goryeo ware	<국보전> 도록 (1957)
	-	Maebyeong Iron-glazed porcelaneous ware with underglaze iron decoration	<오천년전> 도록 (1979)
청자 철채 퇴화 잎무늬 매병	-	Celadon Prunus Vas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 Brown and Paste-on-paste Insam Leaf Design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 (2024)

<국보전> 도록에는 해당 유물에 대해 부제 형식으로 ‘Black Goryeo ware’라는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흑고려’라는 일본식 용어의 의미역이다. 국보전은 한국 정부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미국 순회전이지만 도록 원고 자체는 스미스소니언 산하 프리어미술관(Freer Gallery of Art)의 필립 스텐(Harold Philip. Stern)이 작성했다. 스텐은 일본 미술 전공자였으므로 한국의 문화 유산을 기술함에 있어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흑고려’는 외양만 보면 색상 때문에 흑유자기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태토나 유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청자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명에서 볼 수 있듯 ‘청자 철채’ 혹은 ‘철채 청자’라는 용어로 불린다. 철분이 많이 든 자토(적색 점토)라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철화’가 문양만 해당 재료로 그린 것이라면 ‘철채’는 기면 전면에 발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화’에 해당하는 표현(with underglaze iron brown)으로 ‘철채’를 번역하고 있다.

25) 이와 관련해 김현정(2024, pp. 641-642)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일본에서 분리해 보여준 것이 국보전의 최대 성과였지만 전시품의 선정에서 도록 구성 및 전시 연출까지 “일본의 시각 안에서 작동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 의해 ‘흑유’자기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기는 김현아(2014, p. 283)가 지적하듯 ‘철화/철채’라는 우리 용어가 생기며 ‘청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어의 번역을 통해 기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한국 문화가 지닌 공예적 우수성까지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 덕수 1836번(백자 철화 구름 용 무늬 항아리) 설명에 따르면 철화기법에 사용되는 철사 안료는 그릇에 붓을 대는 순간 수분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붓놀림이 매우 신속하고 능숙해야 한다. 중국 자주요에서 꽃을 피운 철화기법은 중국에서 도입되기는 했으나 청자에 유하채(釉下彩) 방식, 즉 유약 밑에 철사 안료로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방식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포털(Portal, 2000, p. 102)의 설명은, ‘철채청자’가 ‘흑유자기’로 명명된 것이 단순히 문화적 배경 지식의 부족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됨을 암시한다.

5.2 새로운 용어의 ‘전복적’ 등장 – ‘달항아리’(moon jar)

백자와 관련된 용어 중, 조선 후기의 백자대호(白磁大壺)는 ‘백자달항아리’라고도 불리는데 “순백의 빛깔과 둥근 조형미”는 일본과 중국 도자기와는 차별화되는 조선 달항아리의 고유한 특징이다(Kim, 2019). ‘달항아리’라는 순우리말 명칭은 1950년대에 김환기와 최순우가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문소영, 2021).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박물관 도자기 유물명 자료에서 ‘moon’이라는 단어는 <표 6>과 같이 한국과 영미권 모두 최근의 현대 자료에만 등장하며 대부분 ‘달항아리’의 영문 번역인 ‘moon jar’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SL 용어 자체가 등장한 시기가 1950년대이므로 근대 자료에 ‘moon’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행기 자료인 <국보전>과 <오천년전> 도록의 경우, 달항아리가 국보로 최초로 지정된 해가 1991년이므로 국보전에는 전시품으로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오천년전> 도록에는 127쪽에 17~19세기 도자기 대표 이미지로 달항아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은 물론 설명

26) 기법 및 원리를 나타내는 용어의 단순화가 갖는 함의는 본고 2절 김현아(2014) 인용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문 어디에도 ‘moon’과 관련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영미권 현대 자료에서 달항아리 개념을 한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 해외박물관 BM, MET, MFA 모두 주 명칭으로 ‘moon jar’를 수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NRICH에서 작성한 해당 박물관의 조사 보고서 겸 도록을 보면 국문명과 한문명 모두 ‘달’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 영문명에서는 괄호 안에 이칭 처리하거나 ‘white porcelain’과 병기하거나, 달과의 연관성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 등 ‘moon’이 주요한 요소로 전면화 되어 있지 않다.²⁷⁾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에 수록된 TL 명칭 역시 ‘moon’이 괄호 안에 부제로 들어가 있거나 불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²⁸⁾

문화 교류 증가와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한국어 위상이 변방어에서 중심어 중 하나로 상승하며 극초중심어인 영어에 순우리말 용어인 ‘달항아리’의 번역어 ‘moon jar’가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언어 표현을 TL 문화에 유입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7) 이는 아마도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도 ‘백자대호’라는 한자식 명칭에 천착하는 전문가 집단의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SL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번역가들의 일반적인 번역 경향이 더해진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8)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전시품 명칭 용례집』의 경우 95쪽에 국문명은 ‘달항아리’로 되어 있지만 영문명은 ‘Jar, White porcelain’으로 ‘달’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전시실 레이블(2024/10/30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모두 ‘moon jar’로 번역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시실	유물명	소장품번호
기증III실	백자 달항아리 白磁大壺 Moon Jar White porcelain	접수 702, 건희 1604, 신수 14621
조선실	달항아리 白磁壺 Moon Jar	신수 3658

표 6
달항아리 번역 현황

구분	소장품 번호	명칭	부제	NRICH 도록
BM	1999, 0302.1	moon jar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대호 白磁大壺 Porcelain Large Jar (Moon Jar)
MET	1979. 413.1	Moon jar	백자 달항아리 白磁壺	백자항아리 白磁壺 White Porcelain Moon Jar
MFA	50. 1040	Moon jar	백자호, 白瓷壺	백자호 白瓷壺 Jar, White Porcelain
오천년전 도록	국박 소장품	Jar	본문 부제: White porcelain 도판 캡션: Jar, white porcelain	
국립 중앙 박물관	신수 3658	White Porcelain Jar (Moon)	- 국문 웹사이트 제목: 백자대호, 白磁大壺, 백자 항아리	
	접수 702	White Porcelain Jar	- 국문 웹사이트 주 제목 : 백자 달항아리 다른명칭: 보물 백자 달항아리(2005), 白磁 壺, 백자 대호, 白磁大壺	

*박물관 자료는 웹사이트 자료 기준임.

‘달항아리’라는 용어, 그리고 그로 인한 ‘moon jar’라는 번역 용어의 등장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전복적’ 속성을 지닌다. 기존의 단순한 생활자기로서의 ‘백자대호’는, ‘달항아리’라 새로이 ‘호명’되는 순간, 조형미를 갖춘 사색의 대상으로 변모하며, 보다 중요하게는 한국적 정체성을 대변하게 된다(Christie’s, 2023). 흰색의 큰 자기를 총칭적으로 일컫는 ‘백자대호’와 대별되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상징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조선시대 달항아리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30여 점만이 존재한다는 희귀성에 더해, 이러한 문화적 상징성 때문에 달항아리는, 런던 영국박물관, 옥스퍼드 애쉬몰리언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에 대표적 한국 유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달항아리의 이러한 예술적 ‘위계 상승’은,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제에 의해 폄하되었던 조선의 문화와 예술이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

정반으며, 일제의 논리를 뒤집는 전복적 장치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²⁹⁾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한국에서는 ‘백자(대)호’라는 명칭이 주 명칭의 자리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반해, 국외 박물관에서는 오히려 ‘moon jar’라는 영문 명칭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자리 잡은 일본식 도자기명명법에 따른 한자식 명칭에 익숙해져 버린 전문가 집단이 여전히 ‘백자대호’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가운데, 국외에서는 오히려 ‘달항아리’라는 개념이 ‘moon jar’라는 번역어를 통해 널리 확산되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5.3 여전한 과제 – 지워나가야 할 식민유산

해방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식민유산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도 ‘제국의 아카이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각종 용어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장군’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는 ‘rice-bale-shaped...’라는 표현이 어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식민유산일 가능성이 있음을 포착하게 됐다.

물이나 술 등을 담은 데 썼던 그릇인 ‘장군’은 <표 7>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다. 영미권 근대 자료와 <국보전> 도록에 수록된 유물명(소장품명+전시품명)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고, <오천년전> 도록에는 전시품 설명 부분에서 ‘부’나 ‘횡부(橫缶)’, ‘편부’, 장본(簾本/長本), 장분(長盆)이 아닌 ‘장군(Changgun)’이라는 우리말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한자 문화권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로 제시하는 효과를 지닌다.

29)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소니언의 솔정(Sol Jung) 큐레이터의 BBC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다. (Dowdy, 2023 참조)

표 7
'장군' 번역 현황

구분	소장품/ 전시품 No.	명칭	NRICH 도록
BM 웹사이트	1994,0521.1	wine-bottle	<i>Buncheong</i> Janggun with White Slip-brushed Design
브루클린 웹사이트	2004.28.108	Fragment of a Bottle	Barrel-shaped Buncheong Bottle with Fish Design in Underglaze Iron
LACMA 웹사이트	M.2000. 15.94	Cylindrical Bottle with Brushstroke Marks	Cylindrical Bottle with Brushstroke Marks
오천년전 도록	178	Bottle	<i>Changgun</i> is the Korean word for this shape which served as a container for liquids. (본문 설명)
국립중앙 박물관	덕수 5697	White Porcelain Barrel-shaped Vessel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Iron	그 외: 신수 3131(웹사이트), 전시실(기증실III 1건)
	동원 457	Buncheong Rice-Bale-shaped Bottle with Lotus Scroll Design in Underglaze Iron Brown	그 외: 동원 401, 동원 523, 증 130, 증 163, 증 574, 증 746, 증 878
	동원 201	Drum-shaped Bottle with Peony and Fish Design	

현대 자료에서는 그 모양을 기술하는 수식어를 붙여 장군을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rice-bale-shaped...’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rice-bale-shaped...’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박물관 전시실(특히 3층 도자실)에서는 이 표현을 거의 적용하고 있다.³⁰⁾

언뜻 보기에는 ‘rice bale’이, 밀 농사를 주로 짓는 영미권에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벼농사라는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일종의 이국화 번역 전략처럼 비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장군과 유사한 모양의 도자기를 누에고치 모양이라는 의미의 ‘견형호(繭形壺)’ 혹은 ‘잠형병(蠶形瓶)’이라 부르며 이는 김벨미술관(Kimbell Art Museum)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cocoon-shaped jar’라고 번역된다(소장품 번호 AP 1995.02).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에 익숙한 문화 요소를 명칭에 반영한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rice-bale-shaped...’라는 대역어가 자생적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³¹⁾ 『세종실록』에서는 장군 모양을 ‘도고(鼗鼓)’, 즉 긴 북에 비유하고 있다.³²⁾ 반면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저술한 『조선

30) 2023년 12월 9일 현재. 전사실에 전시된 동원 201번(분청사기 조화 물고기무늬 장군) 설명문을 보면, TT에 ‘janggun’이라는 음역이 들어가 있지만, ST에는 ‘rice bal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고 TT에서 ‘cylindrical’로 이미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aped like a rice bale’이라는 영어 화자에게도 익숙치 않은 표현을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군은 물이나 술 등을 담는 데 썼던 그릇이다. 원통형 몸체의 앞뒤면에 물고기의 특징을 살려서 큼직하게 나타냈다...

This type of long cylindrical vessel, shaped like a rice bale, is called a "janggun," and they were used to transport liquid more easily...

31) V&A의 아래 소장품 설명을 보면 도자기 전공의 한국 학생들이 ‘rice bale’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적 표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Meditation - Dream IV’ is a low, squat vase in a shape known to Korean ceramics students as a rice bale bottle, because it reminds the viewer of a bundle of harvested rice stalks. (V&A 웹사이트, FE.324:1-2005 설명, 2024/11/14 접속, 필자 밑줄)

32)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2006) 도록을 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온다.

세종실록 권27에 ‘형상이 도고(鼗鼓)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 것을 속칭 장본(簾本)이라고 한다’는 기록에서 장본은 현재 장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p. 199)

도자명고(朝鮮陶磁名考)』(1931)의 아래 내용을 보면 ‘rice-bale-shaped...’라는 대역어가 일본어에서 중역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その他장군と稱し酒、醬油、水、時に尿などを入れる俵形をしれ瓶も
る。(淺川巧, 1931, pp. 28-29)

[그 밖에도 장군이라 칭하는 것으로 술 간장 물, 때로는 오줌 등을 담는 데 쓰이는 다와라(일본에서 쌀이나 숯을 담는 가마니) 모양을 한 병도 있다.] (다쿠미, 1996, p. 159, 필자 밑줄)

다쿠미는 장군 모양을 ‘俵(다와라)’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俵³³⁾’를 검색해 보면 원통형의 일본 가마니 이미지가 도출되며, ‘rice bale’을 검색해도 유사한 이미지가 나온다. 영어 표현만 놓고 보자면 ‘rice bale’은 ‘벼단’, ‘벼짚’, ‘가마니’ 정도로 역번역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이미지를 검색하면 ‘俵’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번역어 ‘rice-bale-shaped...’는 일본어로 ‘장군’을 지칭하는 ‘俵壺’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俵壺’를 각기 ‘장군’과 ‘Rice-bale-shaped jar’로 번역하고 있는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의 사례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³⁴⁾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rice-bale-shaped...’라는 대역어는 ‘장군’을 일본어로 번역한 ‘俵壺’를 기준으로 중역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쌀농사 문화

33) 검색 결과 중 하나로 도출된 ‘이동근의 일본어클리닉’에 따르면 ‘俵’자는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어에서는 일상 한자로 가마니를 의미한다(이동근, 2019).

34)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은 ‘俵壺’와 관련해 일어,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어 원문 및 영어와 한국어 번역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俵壺(ひょうこ): 俵(たわら)の形をした壺。小さな口と短い頸をもち、高台が付くこともあります。

Rice-bale-shaped jar(俵壺): A jar in the shape of a rice bale with a small mouth and a short neck, occasionally having a foot ring.

장군(俵壺): 가마니 형태를 한 항아리. 작은 입과 짧은 목을 가졌으며 굽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권이 아닌 서양 입장에서 보면 원천 문화 요소를 전달하는 이국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번역어는 “rice-bale-shaped”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떠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중역된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각형 모양의 가마니 자체도 일제 수탈의 산물인데³⁵⁾ 일본식 가마니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표현이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번역어인 것 마냥,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명에 일관되게 적용된다거나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이라는 식의 대표성을 띠도록 해서 안 될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한 『한국문화재용어사전』에서 제시하는 ‘janggun bottle’이라는 대역어가 우리 고유어를 음역한 요소와 기능을 알 수 있는 후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체적 번역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2024. 3. 19 개정, 문화재청예규 제307호)에서는 ‘Barrel-shaped Vessel’이라는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barrel’이 장군과 형태적 유사성을 띠 뿐 아니라 액체류를 보관하는 통³⁶⁾이라는 점에서도 기능적 연결점이 있어 자국화 전략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효한 대안으로 보인다.

6. 나가며

본 연구는 국내와 국외, 특히 우리나라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영미권 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며 그 행위(명명) 주체가 달라지며 한국 도자기 유물명 번역에 있어 번역학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고찰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 시기,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자

35) 일제강점기 이후 농촌에선 쌀 계량 단위를 섬이 아닌 가마니로 쓰기 시작했다. 러일전쟁(1904년) 이후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식 자루인 ‘가마니(일본어로 가마스)’를 들여와 수출용 쌀을 담았다(조영창, 2024).

36) Cambridge Learner’s Dictionary.

일제의 식민지가 된 한국은, 국외에서 스스로를 표상하는 행위 주체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자기 명칭은, 서구에 의해 자국화되어 번역되거나 일본에 의해 명명 및 중역되는 과정에서 피상적 차원의 정보만이, 혹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해방과 한국전쟁기를 거쳐 비로소 명명권을 수복한 한국은, 제작 기법을 구체화한 용어,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용어 등을 유물명에 반영함으로써 제국의 아카이브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교정’하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군’과 ‘rice-bale-shaped...’의 경우처럼 일제 수탈의 잔재와 연결 짓는 번역어일 수도 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즉 과거 명명권 상실로 인해 제국의 식민담화가 유물명에 내재화되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며 전문(번역)용어라는 형태로 고착화되어 오늘날의 번역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사례 발굴과 관련 용어의 ‘순화’ 혹은 표준화 정보의 적극적인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박현주(2016)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용어 번역 시 이데올로기적 문제나 부정적 함의를 내포한 특정 번역어의 사용은 지양할 수 있도록 관련 주의사항을 수록한 공공 포탈적 성격의 ‘번역사전’ 구축 및 활용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면 제약 상 보다 많은 사례를 보여줄 수 없어, 소수의 예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소수라 하더라도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유물명의 번역이 담고 있는 역사적, 국가적 차원의 함의를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유물명뿐만 아니라 관련 맥락까지 살펴볼 수 있는 해당 유물의 설명까지 포함한 코퍼스 자료의 구축을 통해 정량적 측면까지 분석함으로써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4).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6).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9). 미국 코넬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2a).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2b).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3).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5a). 미국 시애틀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5b). 미국 오리건대학교 조던슈니처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5c).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6).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d'Argence, R. L. & Turner, D. (Eds.). (1979). *5000 years of Korean art* 한국미술오천년.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 Hough, W. (1893). *The Bernadou, Allend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Smithsonian Institution.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 Morse, E. S. (1900). *Catalogue of Japanese pottery*. Museum of Fine Arts, Boston.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et al. (1957). *Masterpieces of Korean art: An exhibi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 O. Metcalf C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2016). *Korean collections at the British Museum*.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ackham, B. (1918).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 Department of Ceramics, Victoria and Albert Museum.

Reitz, S. C. B. (1916). *The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early Chinese pottery and sculpture*. Metropolitan Museum of Art.

Warner, L. (1918).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16(61), 17-20.

관련 박물관 웹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국문),

<https://www.museum.go.kr/site/eng/home> (영문)

British Museum.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

Brooklyn Museum.

<https://www.brooklynmuseum.org/opencollection/collections>

Johnson Museum of Art, Cornell University.

<https://museum.cornell.edu/collections/>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https://jsma.uoregon.edu/art/collection>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https://collections.lacma.org/>

Museum of Fine Arts Boston. <https://collections.mfa.org/collections>

Portland Art Museum.

<http://www.portlandartmuseum.us/mwebcgi/mweb.exe?request=home>

Seattle Art Museum.

<https://www.seattleartmuseum.org/art-and-artists/sams-collecti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s://www.vam.ac.uk/collections?type=featured>

<2차 자료>

- 국가유산청. (2024). [별표]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307호, 2024. 3. 19 일부 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7842>
- 국립중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 미술사.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15).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명칭 용례집.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report/archive_10851
- 권기준. (2024). 접촉지대로서 한국 문화재 국외 전시. 한국학연구, 72, 613-640.
- 김윤정. (2016). 근대 미국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32, 291-320.
- 김윤정. (2018). 근대 유럽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6, 29-59.
- 김윤정. (2019). 근대 서구의 시선으로 본 고려도경과 고려청자. 한국사학보, 77, 239-270.
- 김현아. (2014). 식민지시기 유입된 일본어 도자공예 용어가 現도자공예 용어에 미친 영향. 일본연구, 62, 269-287.
- 김현아. (2017).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도자공예 용어의 번역양상과 전문용어로서의 적합성. 한국문화연구, 32, 187-215.
- 김현정. (2024). 1957년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의 성립과정 검토. 한국학연구, 74, 641-685.
- 문소영. (2021. 2. 25). [오피니언] ‘달항아리’는 철학과 감성 결합한 최고의 브랜딩 사례.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9633>
- 박현주. (2016). 문화재 분야 한영 번역용 온라인 전문용어사전 구축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현주. (2022).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 박물관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 -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과 전복적 번역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23(1), 9-43.

- 박현주. (2023). 영미권 박물관 온라인 사전 자료를 통해 본 한국 관련 역사 인식 및 번역. *민족문화연구*, 98, 707-732.
- 송영빈. (2013). 전문용어와 언어의 힘. 은희철, 송영빈, 정인혁.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pp. 3-59).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홍준, 김광언, 이청규, 이강근. (1999). 문화재용어 순화안. 문화재청.
- 이동근. (2019. 6. 12). [강의실 > 한자자료실] 초5 한자 - 俵. 이동근의 일본어 클리닉. <http://www.japaneseclinic.com/m0604/36913>
- 이순령. (2017). [연재칼럼-이 한점의 자료] (53)박물관진열품도감(博物館陳列品圖鑑). 김달진미술연구소. <https://www.daljin.com/column/14448>
-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 이승혜. (2021). 이왕가박물관 불상 컬렉션의 형성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309, 107-144.
- 조영창. (2024. 5. 24.). 쌀로 본 도량형 변천사는?...‘섬 가마니’ 대신 ‘kg t’으로 정착. *농민신문*. <https://v.daum.net/v/20240524050115766>
- 최협. (2008).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에 반영된 한국 문화: 표상화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41(2), 3-38.
- 하계훈. (2008). 한국 박물관 역사를 통해 본 미술사의 역할과 전망.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29, 315-342.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4). *한국문화재용어사전*. 한림출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n.d.). 조화기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10. 27. 검색,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777>
- 한국학중앙연구원. (n.d.). 호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11. 15. 검색,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729>
-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n.d.). 陶磁入門. 鑑賞の手引. 3.器形のいろいろ. 2024. 9. 3. 검색, <https://www.moco.or.jp/intro/guidance/>
- 淺川巧. (1931). *朝鮮陶磁名考*. 工政會出版部.
- 淺川巧. (1996).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심우성, 번역). 학고재. (Original work published 1931)
- British Museum. The Gayer-Anderson cat. Retrieved September 23, 2024, from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animals/gayer-anderson-cat>

- Calvet, L. (2004). 언어와 식민주의: 언어포식 이야기 (김병옥, 번역). 유로서적.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Cambridge Learner's Dictionary. (n.d.). Barrel. In *Cambridge Learner's Dictionary*. Retrieved November 12, 2024, from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learner-english/barrel>
- Christie's. (2023, March 1). A mysterious and delicate beauty: Korean moon jars. <https://www.christies.com/en/stories/korean-moon-jars-a-delicate-beauty-b4e579df4b62483eaede51d03c2d0554>
- Cronin, M. (2000). History, translation, postcolonialism. In S. Simon & P. St-Pierre (Eds.), *Changing the terms: Translating in the postcolonial era* (pp. 33-52). University of Ottawa Press.
- Dowdy, C. (2023, May 11). Why Korea's moon jar is so iconic. BBC. <https://www.bbc.com/culture/article/20230510-the-ancient-symbol-that-defines-korea>
- Kim, H., Chin S., Tak, J. & Kwak, E. (2023). The transliteration of Korean place names in colonial times: Unveiling the strategies of Japanese imperialism. *Acta Koreana*, 26(2), 91-112.
- Kim, H. J. (2019). Moon jars: Self-restraint in porcelain. *Korean Heritage* 44, 3-8. <http://koreanheritage.kr/resource/issue/44/title.pdf?v=40> [한국어본은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절제미의 승화, 순백의 조선백자 달항아리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40597>].
- Kimbell Art Museum. <https://kimbellart.org/>
- MacGregor, N. (2014).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강미경, 번역). 다산초당.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Munday, J.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4th ed.). Routledge.
- Neather, R. (2024). *Translating for museums, galleries and heritage sites*. Routledge.
- Portal, J. (2000). *Korea art and archaeology*. Thames & Hudson.

Translating the titles of Korean ceramics in museums: From “imperial archives” to postcolonial representation

Hyunju Park (beakey72@hanmail.net)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diachronic changes in the translated titles of Korean ceramics in museums, focusing on the issue of agency. During the modern era, when Korea was deprived of its voice, the naming and translation of Korean ceramics were largely carried out by Western powers or imperialist Japan. These practices often involved domesticating ceramic terms into the target language or indirectly translating them through Japanese. As a result, Korean ceramics became subsumed into imperial archives, losing their original context and, at times, conveying inaccurate information.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country has sought to address these inaccuracies by developing a ceramic lexicon that reflects its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sophistication and disseminating revised translations through domestic initiatives.

Keywords: Titles of Korean ceramics; agency; museum translation; imperial archive; postcolonial representation

키워드: 도자기 유물명, 행위 주체, 박물관 번역, 제국의 아카이브, 주체적 표상

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연구교수

beakey72@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